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미술영재교육 현황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제주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김 은 희

2013년 6월



# 미술영재교육 현황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 제주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방 희

김 은 희

이 논문을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김은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6월

A study on the status and parent/teacher  
awareness of gifted art education

- Focusing on Jeju Island Elementary School -

Kim Eun-Heui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ang-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Kim Bang-Hee

Thesis director, Kim Bang-Hee, Prof. of Art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2013. 6.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 초록>

## 미술영재교육 현황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제주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김 은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방 희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고 한다. 미술에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 미술영재아를 가능한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과 미적 감각을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미술영재아들에게 미술적 재능에 맞는 특별하면서도 적합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미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체계가 미비한 현 상황에서 미술영재교육의 운영 실태와 미술영재 선발과정, 교육 프로그램 등 제주도내 미술영재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올바른 미술영재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미술영재교육의 개념 및 특성 등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 두 곳의 미술영재교육 현황을 조사하였고,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 미술영재교육의 과제와 개선방향 등의 요구 파악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미술영재교육은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필요하며 미술영재아 선발 방법으로 창의성 검사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보다 학부모가 학급당 학생 수는 적고 더 많은 학습 시간을 요구하였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특성은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

성이라고 하였다. 미술영재교육 관련 연수 기회의 제공과 더 많은 미술영재 지도 교사의 자격연수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술영재교육의 문제점으로 초등학교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도구 개발 미흡,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미흡, 다양한 형태의 미술영재교육 기회 부족을 꼽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술영재교육 현황과 설문지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토대로 한 미술영재교육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재아의 다면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 선발도구의 개발과 보급, 다양한 미술영재교육 기회 제공 및 계속 교육기회의 부재에 따른 사후 관리 등への 노력 필요, 혁신적이고 창의적, 융합적인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미술영재 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습 자료의 투입과 예술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영재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및 전문적인 미술영재 지도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술영재아의 조기 발굴과 영재교육 시행에 있어서의 차별화된 미술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제주도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초록 .....	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4
II. 미술영재교육의 의미와 고찰 .....	5
1. 영재성의 개념 .....	5
2. 미술영재의 특성 .....	15
3.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 .....	19
4. 미술영재 선발 방법 .....	22
III. 미술영재교육의 현황 .....	27
1. 우리나라 예술중고등학교 현황 .....	27
2.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	29
IV. 연구 방법 및 결과 .....	37
1. 연구 대상 .....	37
2. 조사 도구 및 자료 처리 .....	39
3. 미술 영재에 대한 인식 .....	40
4.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44
V. 결론 .....	57
참고 문헌 .....	59
Abstract .....	61
부록 .....	63

## 표 목 차

<표 1> 미술영재 검사 방법 및 도구 .....	23
<표 2> 전국예술중고등학교 현황 .....	27
<표 3> 제주도 예술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현황과 비율 .....	30
<표 4> 제주도 예술영재교육원 담당 교사 현황 .....	30
<표 5> 제주도 예술영재학급 학생 선발 과정 .....	31
<표 6> 2012학년도 제주도 미술영재 교육프로그램 .....	32
<표 7> 2013학년도 제주도 미술영재 교육프로그램 .....	36
<표 8> 교사의 특성 .....	37
<표 9> 학부모의 특성 .....	38
<표 10> 영역별 문항 분포도 .....	39
<표 11> 미술영재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소 .....	40
<표 12> 교사와 학부모의 미술 영재교육에의 관심 정도 .....	41
<표 13> 미술 영재에 대한 정의 .....	41
<표 14> 미술 영재성 여부 .....	42
<표 15> 예술영재교육원에서의 미술영재교육 실시 인지 여부 .....	42
<표 16> 미술영재교육 실시 인지 경로 .....	43
<표 17> 미술영재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 .....	44
<표 18> 초등학교 시기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 .....	45
<표 19> 초등학교 시기 미술영재교육 불필요 이유 .....	45
<표 20> 초등학교 시기 미술영재교육 필요 이유 .....	46
<표 21> 미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 잠재성 평가의 적합한 방법 .....	47
<표 22> 미술영재교육 운영학급의 적당한 구성 인원 .....	47
<표 23> 적당한 미술영재 교육 기간 .....	48
<표 24> 효과적인 미술영재교육 운영 기간 .....	49



<표 25> 학기 중 미술영재교육 운영의 효과적인 교육활동 주기 .....	49
<표 26>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특성에 대한 인식 .....	50
<표 27>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수업연구 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 .....	51
<표 28> 미술영재 지도교사가 되기 위한 적당한 연수시간 .....	51
<표 29> 초등학교 미술영재 지도교사 선발 방법 .....	52
<표 30> 초등학교 미술영재 관별 및 선발 시 해결해야 할 과제 .....	53
<표 31> 미술영재교육 담당 교사 양성 및 임용 시 해결해야 할 과제 .....	54
<표 32> 미술영재교육 운영 시 해결해야 할 과제 .....	55
<표 33> 초등학교의 미술영재 교육에 대한 전망 .....	5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융합 시대에 있어서 미술은 각종 미디어와 첨단 과학 등과 결부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간이 과거의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외에 문화적인 측면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질 높은 시각 예술 능력은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시각예술에 타고난 감각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는 국가 산업과 경제적 우위를 다투기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개발이 불가피해지고 있다.”<sup>1)</sup>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최대한 계발하고자 하는 노력의 증거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영재들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르도록 놓아두면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미술 영재들을 판별하고, 이들의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들을 교육하고, 미술 영재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고안하여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없이는 미술영재들의 능력과 재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술은 학생들이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문화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을 통

1) 김지원(2007), “한국 미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P.5.

하여 궁극적으로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삶을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준다.”<sup>2)</sup>

이러한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거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아동을 미술 영재라 하며, 미술 영재들에게는 특별한 미술적 재능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미술 영재들에게 적합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미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미술영재교육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기능적이고 정형화된 체제로 미술영재에게 적절하지 못한 환경이었다. 또한 미술영재를 선발하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영재 선발과는 다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미술영재교육이 수학이나 과학, 언어 방면의 영재교육만큼 발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술 교육에서의 핵심인 ‘자기표현’, ‘창의성’에 관련하여 ‘모든 아동에게는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해 창의성이 개발 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sup>3)</sup> 일반적으로 실기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미술영재라고 규정하기 쉽지만, 미술영재성은 그림뿐만 아니라 창의력, 인내심, 작품 제작 능력, 성격과 가치관 등 다각적 측면의 관점이 필요하며 미술영재의 개념과 특성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정확한 영재성 판별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공교육차원의 영재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생 수의 약 0.5%에 이르고 있고,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며 수학·과학 중심에서 정보, 언어, 예술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영재교육은 주로 수학·과학 영재 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등이 수학·과학 영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학·과학 영재는 그 출현 비율이 정상 아동의 1% 수준을 넘지 못하는 데 반해, 미술영재는 38%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예술영재학회, 2006). 이는 비율적으로 더 많은 미술영재가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수의 미술영재교육을 받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2), 2011, 교육과학기술부

3) 김정희(2005), 「미술영재 이야기」, 학지사, pp.21-22.

은 초등학교 이후의 미술영재들은 예술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술학교들도 전문 영재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창의성이나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미술교육과 대학입시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의 영향력, 미술 영재의 발달에 있어 미술 교사의 역할은 미술 재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든 발전 과정은 강도 높고 지속적인 교육의 결과이다. 미술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나 재능은 도움과 지도, 격려와 더불어 많은 양의 실습과 학습 없이는 발달되지 않는다. 개인의 재능이 문화와 교육을 포함한 많은 힘들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미술 영재들의 교육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다. “미술 재능의 발달은 복합적인 능력들이 학습되는 과정이며, 성숙으로 인한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러한 발달은 문화와 그 문화 내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에 큰 영향을 받는다.”<sup>4)</sup>

미술 영역에 타고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시행의 시범적 운영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미술에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 미술영재를 가능한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sup>5)</sup> 미술 분야에 있어서 조기에 발굴하여 재능에 맞는 교육과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창의성과 미적 감각을 키워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미술영재교육에도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제주도에서도 미미하게나마 미술영재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술교육에 대한 희망이 아직 살아있음을 상기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영재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여건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문제나 선정 기준, 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내 미술영재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미술

4) 길버트 클락, 에니드 짐머먼(2008), 미술영재교육 이론과 실제, 미진사, P.140.

5) 윤성자(2005), 초등학교 고학년용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P.2.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올바른 미술영재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미술영재교육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의 미술영재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 등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미술영재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규명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 중·고등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 두 곳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학교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배부하였다. 제주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는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배부된 설문에 응한 교사 319명과 학부모 44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영재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미술영재의 개념 및 특성, 미술영재 교육의 필요성 등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둘째, 현재 제주도내의 미술영재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 두 곳의 교육현황을 조사하였고

셋째, 미술영재에 대한 개념 및 교육의 필요성, 미술영재교육 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을 위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설문을 분석하였고

넷째, 앞의 과정을 통해 고찰한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미술영재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Ⅱ. 미술영재교육의 의미와 고찰

### 1. 영재성의 개념

#### 1) 용어 및 개념

영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영재의 기준과 영재성이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문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또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재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을 영재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 속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 혹은 ‘영재아’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보통의 또래 아이들에 비해 뛰어난 학습 능력이나 재능을 보이는 아동으로 ‘영재성’은 ‘뛰어난 능력’을 지칭하고 있다.

영어로 영재의 개념은 ‘gifted’와 ‘talented’이 혼용되고 있으며, 의미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때로 ‘gifted’는 지적인 능력 영역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고, ‘talented’는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과 같은 영역에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평균 이상의 두드러진 능력을 가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용어는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gifted’와 ‘talented’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영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되 그 능력에 대해서 영재성(giftedness)과 재능(talent)을 구분해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sup>6)</sup>

6) 김정희(2003), “미술영재아의 조기 진단과 그 지도 사례”, 예체능교육연구, p.90.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나 저절로 특별한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를 놀라게 하거나 지능지수가 높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거나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일컬어 신동, 수재, 천재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취학 전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조기유아교육’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특수재능아’는 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영재’라는 용어 대신 사용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 개인이 나타내는 뛰어난 아동을 통틀어 ‘영재’ 또는 ‘영재아’로 지칭하고 뛰어난 특성을 ‘영재성’으로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 2) 영재성의 이론적 개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영재’의 개념은 ‘타고난 능력’을 함축하지만, 그 능력을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계발해 나가는 측면은 강조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초기에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중심으로 ‘지능’이라는 일부분의 범주에서만 일컬어 왔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능이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길퍼드(J.P.Guilford)와 토렌스(E.P.Torrance), 스텐버그(R.J.Sternberg)와 같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능의 다양한 측면과 창의성의 개념이 제시되어 영재 개념을 발전시켰고, 이후 테닌바움(A.J.Tannunbaum), 렌줄리(J.S.Renzulli)의 세 고리이론, 가드너(H.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가네(F.Gagne)의 적성이론 등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성을 찾을 수 있고, 교육 환경과 훈련에 의하여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sup>7)</sup>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가 활발해 지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한국영재학회가 설립되었고, 1990년부터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조석희는 1997년 발표한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에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영재성과 특수 재능 간의 관계와 피라미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영재성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영재성을 ‘타고난 인간의 능력 또는 적성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7) Catharina F.de Wet/정현철(2008), 「영재교육의 기초」, 한국교총영재교육원, pp.3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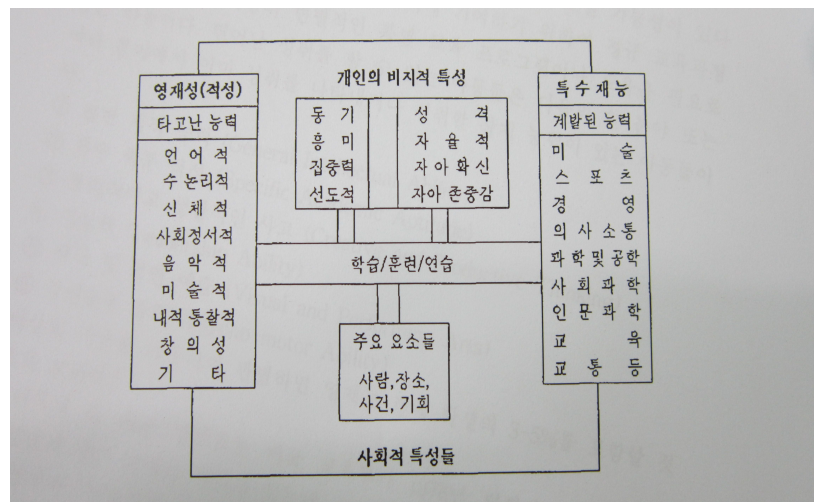


적성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 영재로 불리기도 하고 일반인으로 불리기도 하며 어린아이 중에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도 영재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특정 분야의 영재성이 있는가를 나타내어주는 가장 좋은 행동지표는 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쉽게 빨리 배운다는 점이다. 미술 분야의 영재성이 있는 아동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이미 한번 무심코 그린 선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미술학도가 해낼 수 있는 그림 솜씨를 보인다든가, 색의 조합에 관하여 몇 번 안 되는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색깔을 익힌다든가 하는 점이 보인다.”<sup>8)</sup>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재성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타고난 적성이 나타나지만 반드시 자연적인 성숙과 함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발된다. 즉, 매일 이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만 계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훈련, 학교에서의 문제해결 연습, 단어 퍼즐 풀기, 창의성 연습, 자원봉사 등을 하는 동안 이러한 능력이 더욱 계발된다.

아래의 그림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재성과 그 영재성이 계발되어 특수재능으로 발현되는데 관계하는 여러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영재성과 특수재능 간의 관계

(출처 : 조석희, 1995,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교육연구 제5권, p.14. )

8) 조석희(1995)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교육연구 제5권, p.13.



영재성의 발달에는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과 그 개인이 자라난 환경이 모두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밖에도 영재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많은 기초 연구를 통해 영재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영재성 정의와 영재교육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교육기본법제12조와 제19조에 영재교육을 할 필요성을 명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을 2000년 1월 28일에 제정·공포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취학한 자 중에서 일반 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 중 각각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 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한다.”<sup>9)</sup>

이는 미국에서 각 주 정부가 제공하는 영재교육 실천 계획안, 영재교육예산이나 각 학교 또는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주 또는 지역 교육구청 등이 마련한 프로그램 계획서 등에 제1장에 빠짐없이 인용되는 정의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도 이 정의를 근간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의는 영재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이 일반 아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들로서, 그들의 능력수준과 관심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기술되었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생의 능력 수준, 관심 및 적성을 고려하여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 체육 및 기타 다양한 특수재능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할 영재의 비율이나 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영재교육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각 영재교육 기관이 자율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과 영재교육의 영역을 정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목표, 선발방법, 교육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고 보기 때문이다.”<sup>10)</sup> 우리나라가 영재성을 나타내는 아동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점차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을 15~20%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아직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 다양한 영재성의 정의

학자에 따라서 영재성의 개념과 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각기 상이하다. 이 정의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의를 선택하는 가는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바탕에 근거한다기보다 그 사회, 시대, 문화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우수한 사람들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영재성에 관한 많은 정의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미연방정부 교육부의 마랜드(Marland) 정의, 렌줄리의 세고리 정의, 터넬바움의 정의, 가네의 적성이론에 의한 영재성 정의를 살펴봤다.

#### ① 미국 교육부의 정의

대부분의 미국 영재교육 담당 교육가들은 미국 교육부가 1972년에 처음 내놓은 영재의 정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도 이 정의를 근간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72년 마랜드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재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훌륭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별된 아동으로서, 그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변별적인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는 아동들은 다음의 한 분야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성취를 나타내거나 성취할 잠재 능력이 있는 아동들이다.

- 일반적 지적 능력
- 특수 학문 적성
-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

10) 조석희, 박성익, 정태희(2001), 영재교육 실천방안, 한국교육개발원, CR 2001-35, p.1.

- 지도력
- 시각 및 공연 예술
- 정신 운동 능력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여 판별하면 영재는 전체 학생의 3~5%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미국의 또 다른 정의로는 미국 교육부가 1978년 의회의 수정을 거쳐 1988년에 내린 영재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영재아·재능아란 지능, 창의성, 예술성, 리더십이나 특수한 학업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했거나,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교육 이상의 교육 서비스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한다.”<sup>12)</sup> 더욱이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영재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일반 지능뿐만 아니라 구체적 학문영역과 예술 분야의 재능도 고려한다.
- 창의적, 지도자적, 정신 운동적 재능도 포함하였다. 학문적으로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적을 남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제2차 세계대전에서 뛰어난 영도력을 보여준 루즈벨트, 스키나 스케이팅, 체조나 달리기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도 영재라 하였다.
-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영재들을 위해 ‘변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 영재들을 위하여 특별 교육 자료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서 영재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높은 잠재력을 계발시키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즉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영재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높은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지도자’와 ‘문제 해결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11) 조석희(1995), 전거서, p.15.

12) 미국 교육부(1988) ‘뛰어난 어린이와 장애인의 교육의 구현’ 의회에 열 번째 연차 보고서, 56(1), pp.7-9.

- 우수한 성취를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영재아도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잠재 능력이 있는 자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를 영재로 간주하여 미성취 영재나 환경이 불우하여 높은 성취를 보이지 못한 영재도 특별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② 렌줄리의 세 고리 정의

미국 교육부의 정의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재아의 개념은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수이자 미국 연방정부의 국립 영재교육 연구소 소장인 렌줄리에 의한 정의이다. 렌줄리는 실제로 사회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극단적으로 높을 필요는 없는 “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착력”<sup>13)</sup>이라고 하였다.

렌줄리는 영재는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 특성에서 모두 대단히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 특성에서는 적어도 상위 2% 이내에 속해야 하지만 나머지 특성에서는 상위 15% 이내면 된다는 것이다. 렌줄리는 이 정의에서 일반학생의 15~20%가 영재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3%의 아동들만이 영재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이라는 과거의 제한적인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 · 평균이상의 능력

렌줄리는 웨슬러(Wechsler) 지능검사로 측정하였을 때, 지능지수가 약 115 이상이면 충분히 영재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을수록 대단히 뛰어난 성취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렌줄리는 평균 이상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뛰어난 성취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 ·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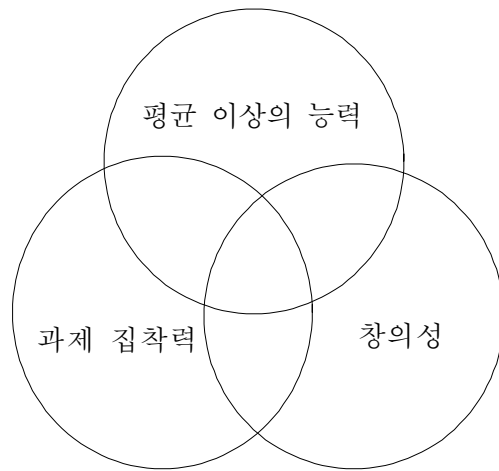
창의성은 영재성의 주요 요소이지만, 창의성의 개념이 학자들마다 분분하며 또한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도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다.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창의성을 측정하는 진정한 창의성 검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재의 중요한 특성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은 특성이 바로 ‘창의성’이다. 렌줄리가 영재성의 일부로 제시했던 창의성은 1970년

13) 조석희(1995), 전계서. P.34.

대의 시류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주로 ‘확산적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창의성이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 과제 집착력

과제 집착력은 어떤 한 가지 과제 또는 영역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성격 특성을 일컫는다. 렌줄리 외에 테르만(Terman)도 과제에 대한 열정이 영재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렌줄리의 세 고리 정의(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출처: 한국 교육개발원의 영재교육 기초 연수 강의 교재)

③ 테넨바움의 정의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테넨바움 박사는 “영재성은 충분히 계발된 재능은 성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윤리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심미적 생활 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표상 또는 결정적으로 존경을 받는 수행자가 될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테넨바움은 성인으로서 뛰어난 성취를 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뛰어난 일반지능, 뛰어난 특수 적성, 비지적 촉진제, 환경의 영향, 기회 또는 행운을 들었다. 이 요인이 희귀한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나 작품이 나오게 된다.”고 보았다. 테넨바움은 잘 계발된 영재성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 과학, 의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발명으로 인하여 그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재능으로 ‘희귀한 특수재능’을

- 대부분 미술 분야의 재능으로서 우리 사회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재능으로 ‘잉여 특수재능’을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화된 고급기능으로서 전통적인 직업들을 포함한 ‘일정비율의 특수재능’을
-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능(요리, 정원다듬기), 남을 즐겁게 하는 것(비상한 기억력, 속독, 곡예사), 사라진 재능(석공, 수사),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기능(민중선동, 마키야 벨리즘) 등이 포함된 ‘익명성의 특수 재능’을 꼽았다.<sup>14)</sup>

#### ④ 가네의 적성 이론

가네는 앞에서 서술된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타고난 영재성과 특수재능을 구분하여 정의하며, 타고난 영재성이 특수재능으로 발달되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영재성은 천성적으로 타고났거나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적성이라 불리는 인간의 능력을 영재성으로 보았고, 이러한 영재성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인간의 특정 활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능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특수재능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영재성은 인간 적성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타고난 능력을 말하고, 특수재능은 인간 활동의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평균 이상의 성취를 말한다.”<sup>15)</sup>

각 적성이 동기와 성격이라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요인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발달되어 특정분야의 특수재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난 영재성이 특수재능으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흥미, 집중, 집착력과 같은 동기적 측면과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율성과 같은 성격이라는 개인 내적 촉진제가 있어야 하고,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적인 요소가 이런 적성을 계발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개인 내적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한 개인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특수재능이 발달되는 것이다.”<sup>16)</sup>

14) 테넨버움(2003), 자연과 영재 육성. 영재 교육 핸드북 (제 3 판), P.46.

15) 김지원(2007), 전개서, p.14.

16) 가네(1985), 영재 및 재능: 분기 별 정의, pp.103-112.

영재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이론이 포함하거나 다루는 능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하여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재성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기는 해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영재들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동시에 이미 습득한 지식을 관련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적용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꼽는다. 즉, 능력이 또래에 비해 뛰어나며 일반학생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결국, 영재라는 개념은 개인의 영재성이 발견되어 성취되기까지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인간관계, 조력자, 학습 환경, 꾸준한 연습 등 후천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내포하면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영재에 대한 정의는 안정된 영재 교육 정책을 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정책 결정과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미술영재의 특성

음악과 달리 미술은 아주 어린 나이에 영재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미술은 음악처럼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아이들은 서너 살 때부터 주위의 사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재아는 두 살 때부터 이 단계에 들어간다. 일단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들이 그리고자 하는 사물의 정확한 형태를 자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평범한 아이는 절대 그릴 수 없는 수준으로 실제와 비슷하게 그리면서 볼륨과 깊이까지도 표현하려고 한다.”<sup>17)</sup>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며 평면적인 일반 아이들의 그림과는 달리 재능아가 그린 그림은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음을 나타낸다.”<sup>18)</sup> 또한 “틀에 박힌 그림의 형식이나 조형을 연습하기 보다는 자신의 그림 속에서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기를 훨씬 더 흥미로워한다.”<sup>19)</sup>

“미술영재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위플(Wipple)(1919)의 ‘영재를 위한 분류’에서 유래”<sup>20)</sup>하며 “미술영재들의 특성은 특히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발표된 미술영재에 관한 연구 문헌의 분석을 기초로 한 클락과 짐머만(Clark & Zimmerman)(1984, 1987)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sup>21)</sup> 영재아의 개념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지능이 따로 존재함을 주장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서도 예술분야에 관한 지능 혹은 재능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 밝히고 있는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은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함을 명

17) 정은선(2004), “미술영재교육 현황분석”, p.12.

18) 전성수(1996), “미술영재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V.4, p.122.

19) 서제희(2003), “미술영재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p.17.

20) 이용애(2003), “초등학교 아동의 시각예술영재성 판별준거개발”, 초등교육연구 제16호(2), p.398.

21) 김정희(2003), “미술영재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7집, p.66.



시하고 있다. ‘미술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이 명시해 놓은 ‘예술적 재능’에 포함된다. ‘시각적 공연예술’에 뛰어난 사람으로 미술영재의 행동 특성을 준거로 미술영재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몇 편의 미술 영재관련 연구에서는 음악과 달리 미술에서 어린 나이에 영재성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분명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나 아동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미술영재의 특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엇이 미술영재아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미술 영재아를 판별하는 특징으로 ‘전경원’은 다음의 열 가지를 꼽았다.

- 시각과 관련된 것에는 무엇이든 강한 흥미를 나타낸다.
- 본 것에 대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한다.
-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 예술작품에 열중하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진보된 발전을 보인다.
- 예술매체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대안적이거나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실험한다.
- 그림에 중요한 요소를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미리미리 계획한다.
- 그림을 그릴 때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표현하거나 정교하게 채워 놓는다.
- 구상(균형, 조화, 공간의 활용), 도안, 색의 사용이 놀랄만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다.
-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한 예술 작품을 제작한다.<sup>22)</sup>

또한 ‘김정희’는 미술영재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2003)에서 미술영재의 미술적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미술작업 과정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보인다.
- 시각 현상에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려고 한다.
- 찰흙놀이, 가위질하기 등을 즐긴다.

22) 전경원(2000), 「한국의 새 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학문사, p.317.

- 미술관련 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할애한다.
- 자신의 작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높다.
-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갖으려는 의지가 높다.
- 섬세하고 풍부한 조형언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조형언어를 창조하고 실행한다.
- 목적의식이 분명하며 의도적인 표현을 한다.
- 타인과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 대상이나 시각적 현상에 대한 기억력이 높다.
-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미술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그리기와 만들기 활동에 장시간 동안 몰입한다.
- 자신의 미술적 행동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미술 행동과 관련하여 격려와 자극을 원한다.
- 일정한 색과 주제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집착한다.
- 사진, 삽화, 또는 다른 미술 작품을 보고 그리기를 좋아한다.
- 영화 감상을 즐기며 영화, 광고, 사진에 활용된 시각적 효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새롭고 복잡하고 신비로운 주제와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
- 새로운 매체를 실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높다.<sup>23)</sup>

로웬펠드(V. Lowenfeld)는 미술영재아의 특징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 상상력과 표현의 유창성 : 영재는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자신의 능력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주제와 형태에 대한 변화, 우연한 기교를 활용하는 능력들을 꼽을 수 있다.
- 고도로 발달된 감수성 : 주제, 상황, 재료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고도의 인식 능력이다.
- 풍부한 직관적 상상력
- 표현의 직접성 : 영재는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직관적인 자질로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 고도의 자아 동일화: 영재는 창조과정의 경험에서 주제, 재료, 매체 등과 구

23) 김정희(2003), 전계서, pp.95-96.

성과 표현을 일치시킨다.<sup>24)</sup>

또 다른 견해로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공간적 영역’에서 재능이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 놀이를 즐긴다.
- 특별히 좋아하는 색이 있다.
- 꿈 이야기를 자주한다. 꿈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 길눈이 밝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 그림을 그릴 때 세밀하게 그린다.
- 퍼즐이나 기계 장난감들을 분리하고 다시 끼워 맞추기를 즐긴다.<sup>25)</sup>

우리나라에서의 초등학교 아동의 시각예술영재성 판별 준거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각예술영재성은 “시각예술 표현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 능력, 동기, 창의성, 표현력의 요인이 평균이상의 정도이고 이러한 구성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평균 이상의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각예술적 능력”이라고 정의했다.<sup>26)</sup>

일반 영재성의 개념과 미술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로부터 ‘미술영재성 판별 준거 모형’을 개발하였고, 상당히 체계화된 미술영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 영재성 개념 모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전제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모든 아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잠재적으로 시각적인 동기, 창의성, 인지능력, 표현력의 상호작용 영역으로써 선천적인 시각예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선천적 시각예술 능력일지라도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촉매요인, 즉 환경적 요인의 작용 여부에 따라 성취영재성과 미성취영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높은 시각예술능력으로 나타나는 성취된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24) 서제희(2003), 전계서, p.53.

25) 김정희(2005), 미술영재 이야기, 학지사, pp.197-198

26) 김지원(2007), 전계서, p.18.

27) 이용애(2003), 전계서, pp.399-400.

이상과 같이 살펴본 미술영재의 특성에는 행동적 특성이 전제된 것이었고, 이 특성에 맞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미술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의 내적인 의지를 강화시켜줄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해서 비롯된다고 보기도 한다.”<sup>28)</sup> 미술영재의 뛰어난 능력과 타고난 잠재력을 나타내는 행동적·표현적 특징뿐 아니라 지식 위주의 교육과 정형화된 교육 안에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기도 하고 일탈을 시도한다거나, 자신의 강한 호기심과 표현의 욕구를 포기하고 체제에 순응하여 미술 영재성이 사장되는 부정적 요인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술영재를 위한 교육적 권리를 형성하고,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술영재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3.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

문화의 사회로 불리는 미래 사회의 중심에는 시각문화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질 높은 미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최근 영재교육의 동향이다.<sup>29)</sup> 이는 미술영재교육의 미흡이 곧 문화의 낙후성과 국가 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예술인 양성을 위한 미술영재교육의 부재는 문화의 경쟁에서 뒤처짐을 의미하며, 이는 곧 경제, 사회문화 등 국가경쟁력이 되는 다방면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체제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미술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의 영재성은

28) 김정희(2005), 전제서, PP.26-29.

29) 윤성자(2005), “초등학교 고학년용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13.

잠식되고 말 것이다.

“구운모(2000)에 의하면 미술 인프라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미술에서도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미술, 응용미술, 미술의 종합에서도 모두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규모는 세계 16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술 인프라의 종합 순위는 OECD 국가 중 26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 사회에는 미술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미술 인프라의 구축은 미술 생산자를 육성하는 미술영재교육으로부터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무리 뛰어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질 높은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수전략으로 교육에 의한 재능을 키워주지 않으면 그 재능은 발현될 수 없다.”<sup>30)</sup>

미술적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가 많지만, 선천적인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과 본인의 내적 의지이다. 장차 세계적인 예술가를 꿈꾸는 재능 있는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타고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도 대학 진학과 더불어 어느 순간 평범한 전문가나 안정을 추구하는 작가들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예술적 능력은 지적 능력이 아닌 특수한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때문에 학교에서 다룰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서 예술적 능력이 탁월한 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왔고 미술에 재능 있는 소수의 어린이들은 예술 중·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뒤늦게나마 각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미술영재교육이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시작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과 같은 외국에서는 예술영재분야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접하도록 하여 어릴 적의 재능과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새로운 지식의 형성을 도모하는 토대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에게 내재된 생물학적 심리학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도의 생산 가치를 창출할 수

30) 이은지(2010), “초등미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개개인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개인으로서 행복하고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부모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교육적 책임이다. 교육의 기능은 자연 발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학습을 최적화 시켜주는 의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미술에 특별한 열정과 흥미를 보이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그 분야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이고도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술영재교육은 타고난 예술적인 감각 및 재능을 일찍 발견하여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데 참 뜻이 있다. 따라서 미술적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재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과 자질, 학습속도, 흥미에 따라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주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한 나라의 미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의 인력 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된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개인적 측면, 교육적 측면, 국가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미술영재교육은 타고난 잠재력을 나타내게 되는 재능 분야를 계발시켜 줌으로써 자기 성취를 최대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의 일반 학교교육 체계 하에서 능력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사장 당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헌법 제31조에서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교육 기본권에 충실한 동시에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단순히 소모하는 인간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영역을 창의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냄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정신 및 물질문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영재의 뛰어난 예술적 성취가 국가의 번영의 원동력이므로 국가적 측면에서 미술영재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된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의 가치가 크며 다른 학문 분야만큼 외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분야임이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입증되었다. 우수한 미술 인력 양성은 문화예술 산업을 비롯하여 디자인, 미술계를 비롯하여 타 분야로 진입한 미술영재의 발전에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전 세계를 활보하며 우리 예술의 가치를 드높이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제도 아래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영재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 운영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술영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학, 과학 등에 편중되었던 영재교육지관이 미술 분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영재교육 또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만나 서로 자극제가 되고 전문 인력과 전문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서 재능을 계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 위주의 기능적인 교육이 아닌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과 높은 심미적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미술영재교육을 통하여 21세기의 수준 높은 예술가를 양성해내야 할 것이다.

#### 4. 미술영재 선발 방법

역사적으로 미술영재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관점과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미술영재성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미술영재의 특성을 근거로 개발이 되는데, 영재성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영재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선발 절차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형식적 검사 방법, 표준화 검사 도구, 비검사 측정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미술영재 검사 방법 및 도구

검사 종류	검사도구	특성
형식적 검사방법	창의성 검사	창의성을 구성하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을 측정
	성취도 검사	성취결과를 가지고 영재를 선발하는 방법-학업성취도검사
	지능검사	높은 지능과 예술능력은 상호 의존적임
표준화검사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Horn)(1935) : 미술 성적 조사</li> <li>· 코우치와 디한(Kough &amp; DeHaan)(1995) : 저작 샘플 기술</li> <li>· 그레이브스(Graves) : 디자인 판단 검사</li> </ul>	
비형식적 검사 도구	포트폴리오	미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미술영재성을 검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터뷰 고정에서도 참고
	구조화된 지명	행동 점검 방법(behavior checklist)
	비표준화 검사	시각적 이야기 검사 방법
	기술식 체크리스트	수행평가의 서술식
비검사 측정방법	지명법	자기, 동료, 예술교사, 부모, 담임교사 지명법
	면접법	응시자에 관한 정보 수집, 프로그램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 최종 선발과정에서 사용이 효과적

(출처: 이용애(2004), “우리나라 예술영재선발의 현황 및 과제, 한국예술영재학회”, 서울, pp.107-112.)

형식적 검사 방법은 일정 수준의 타당고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의성 검사, 성취도 검사, 지능검사 등을 들 수 있다. 창의성 검사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이러한 창의성 검사는 일반적인 창의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1973년 길퍼드의 아동을 위한 창의성 검사와 1974년 토렌스의 창의적 사고 검사, 1965년 발라흐(Wallach)와 코간(Kogan)의 아동용 창의성 검사 등이 있다.<sup>31)</sup> 미술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983년 클락과 짐머만이 개발한 미술영재 선발 검사 도구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의 영역으로 있다. 그러나 창의성 검사가 영재를 측정하는 형식적 검사 도구로써 타당한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

31) 길버트 클락, 에니드 짐머먼(2008), 전게서, pp.84-93.



과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미적 표현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일반적인 창의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반드시 미술 창의성도 높다고 단정 할 수 없을 것이다.”<sup>32)</sup>

성취도 검사는 그 분야의 성취결과를 가지고 영재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업성취도 검사이며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는 해당 영역의 성적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어서 상위 몇 %를 영재라고 규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학생을 영재로 선발한다. 그런데 많은 예술 교육가들은 “지능이 높은 아동들이 예술 표현력도 우수하며, 예술 표현력이 우수한 아동들은 대부분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능과 예술능력 간의 상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지능과 예술능력은 상호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33)</sup>고 주장하고 있다. 지능과 예술 표현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미술영재 선발에 있어 표준화 검사 도구는 학문분야의 영재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비해 수가 적으며, 장기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부족하다. 현재 개발된 도구로는 1935년 혼의 미술 성적 조사, 1995년 코우치와 디한의 저작 샘플 기술, 그레이브스의 디자인 판단 검사 등을 들 수 있다.”<sup>34)</sup>

비형식적 방법은 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평가, 비표준화된 검사, 구조화된 추천, 기술식 체크리스트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술영재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2~3개 이상의 비형식적인 검사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sup>35)</sup>

포트폴리오 평가는 개개인의 진보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미술영재를 선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사실상 잠재적인 재능을 선별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지원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만을 기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놓칠 수 있어서 초등학교 수준보다는 주로 중학교 수준 이상에서 주로 사용한다.<sup>36)</sup> 그러나 우수한 학생은

32) 이연주(2007), “한국 예술영재교육 현황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33) Catharina F.de Wet/정현철(2008), 전계서, p.25.

34) 이용애(2004), 전계서, p.113.

35) 김정희(2005), 전계서, p.206.

36) 김정희(2005), 전계서, p.217.

확연하게 구분이 되므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화된 지명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점검 방법이다. 일반적인 지명법과 다른 점은 지명의 준거를 제시하고 그 준거의 사용에 관하여 충분한 연수를 실시한 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sup>37)</sup> 구조화된 지명의 내용은 관찰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준비되어야 하고, 특별한 범주에 있어서 이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사들이 이를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표준화된 검사는 특별한 예술영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각적 이야기 검사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검사는 아이들에게 일련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들의 시각적인 기억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sup>38)</sup>

기술적 체크리스트 검사는 기술식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자가 기술하는 방식이다. 체크리스트의 세부 사항은 어디까지나 미술 영재의 특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sup>39)</sup> 따라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로 잘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들에게 무리한 시간을 요구해 업무의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단점이 있다.

비검사 측정은 직접적인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선발 방법이다. 따라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수준의 준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미술영재를 선발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sup>40)</sup> 그 중 자기 지명법과 동료지명법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급, 교외활동, 특별활동 등에서 다른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욕구, 관심, 재능, 능력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된다.

면접은 비구조화된 개방적 양식으로 지원자와 면접자 모두에게 아이디어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응시자에 관한 정보수집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sup>41)</sup> 그러나 면접법은 고비용이고 시간적 소비가 많아서 학교에서 면접법을 사용할 때에는 최종 선발

37) 길버트 클락, 에니드 짐머먼(2008), 전게서, pp.87-88.

38) 길버트 클락, 에니드 짐머먼(2008), 전게서, pp.84-93.

39) 김정희(2005), 전게서, p.211.

40) 김정희(2005), 전게서, pp.205-206.

41) 길버트 클락, 에니드 짐머먼(2008), 전게서, pp.84-93.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미술영재 판별에서 창의성 검사 등의 유용성은 어떤 연구자와 저자들에 의해서는 옹호되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는 문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재판별을 위한 창의성 검사 및 타 검사에 대한 연구를 통합 분석하고, 검사 도구와 미술재능 판별과의 관계에 대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Ⅲ. 미술영재교육의 현황

#### 1. 우리나라 예술중고등학교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영재교육은 2001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과학 영재교육이 시범 운영되었고, 미술영재교육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수학, 과학 영재교육에 비해 예술영재교육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미술영재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 예술중고등학교 내 미술 영역의 교육 실시 여부를 살펴보고, 제주도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 기관의 실태, 교육대상자 현황과 비율, 담당교사 현황, 선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표 2> 전국 예술중고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전공	사이트	소재지
1	강원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gwarts.hs.kr">http://www.gwarts.hs.kr</a>	강원도 강릉
2	경기예술고등학교	음악, 만화창작, 연극영화, 미술	<a href="http://kgart.hs.kr">http://kgart.hs.kr</a>	경기도 부천
3	경남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애니메이션	<a href="http://www.karts.hs.kr">http://www.karts.hs.kr</a>	경남 진주
4	경북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gahs.or.kr">http://www.gahs.or.kr</a>	대구
5	계원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애니메이션	<a href="http://www.kaywon.hs.kr">http://www.kaywon.hs.kr</a>	서울
6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 미술, 무용, 연극영화	<a href="http://www.goarts.hs.kr">http://www.goarts.hs.kr</a>	경기도 고양
7	광주예술고등학교	국악, 음악, 무용, 미술, 한국화	<a href="http://www.kj-art.hs.kr">http://www.kj-art.hs.kr</a>	광주
8	국립국악고등학교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타악, 정가, 판소리, 민요, 이론, 작곡, 무용, 지휘, 연출	<a href="http://www.gukak.hs.kr">http://www.gukak.hs.kr</a>	서울

9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무용과, 음악연극과, 창작연희과, 성악과, 기악과, 연희극과 중:한국음악, 한국무용, 음악연극	<a href="https://www.kugak-am.hs.kr">https://www.kugak-am.hs.kr</a>	서울
10	김천예술고등학교	음악과, 조형예술과	<a href="http://gcarts.hs.kr/site/gcarts/index.html">http://gcarts.hs.kr/site/gcarts/index.html</a>	경북 김천
11	대전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taejonart.hs.kr">http://www.taejonart.hs.kr</a>	대전
12	덕원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dwarts.hs.kr">http://www.dwarts.hs.kr</a>	서울
13	리라아트고등학교	실용음악, 사회체육, 컴퓨터미디어	<a href="http://www.lila.hs.kr">http://www.lila.hs.kr</a>	서울
14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pusanarts.hs.kr">http://www.pusanarts.hs.kr</a>	부산
15	부산영상예술 고등학교	영상제작, 영상연출, 연기, 영상디자인	<a href="http://www.visual.hs.kr">http://www.visual.hs.kr</a>	부산
16	브니엘예술 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peniart.or.kr">http://www.peniart.or.kr</a>	부산
17	서울공연예술 고등학교	공연예술, 영상예술, 무대미술	<a href="http://www.sopa.hs.kr">http://www.sopa.hs.kr</a>	서울
18	서울미술고등학교	디자인, 서양화, 조소, 한국화, 소묘, 만화	<a href="http://www.seoul-art.or.kr">http://www.seoul-art.or.kr</a>	서울
19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yego.or.kr">http://www.yego.or.kr</a>	서울
20	선화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sunhwa.org">http://www.sunhwa.org</a>	서울
21	성남고등학교	애니메이션, 연극영화, 뮤지컬, 만화창작	<a href="http://www.sungnamgo.org">http://www.sungnamgo.org</a>	충남 연기
22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 사진영상, 무용, 미술, 문예창작, 음악	<a href="http://www.anyangart.hs.kr">http://www.anyangart.hs.kr</a>	경기도 안양
23	울산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ulsanart.hs.kr">http://www.ulsanart.hs.kr</a>	울산
24	원광정보예술 고등학교	악과음, 미술	<a href="http://www.wia.hs.kr">http://www.wia.hs.kr</a>	전북 익산
25	인천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in-art.hs.kr">http://www.in-art.hs.kr</a>	인천
26	전주예술고등학교	국악학, 음악학, 미술학, 무용학, 방송문화예술	<a href="http://www.fineart.hs.kr">http://www.fineart.hs.kr</a>	전북 완주

27	충남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cna.caehs.kr">http://cna.caehs.kr</a>	충남 천안
28	충북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무용	<a href="http://www.cbart.hs.kr">http://www.cbart.hs.kr</a>	충북 청주
29	포항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a href="http://www.pharts.hs.kr">http://www.pharts.hs.kr</a>	경북 포항
30	한국예술고등학교	음악, 미술, 연극영화	<a href="http://www.koreaartschool.co.kr">http://www.koreaartschool.co.kr</a>	서울
31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뮤지컬, 실용무용, 실용음악, 패션모델, 영상제작	<a href="http://www.hlyes.hs.kr">http://www.hlyes.hs.kr</a>	서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술중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음악, 미술, 무용 영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연결하여 6년의 과정을 거치는 학교와 고등학교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예술학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술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의 학교에서조차 미술 영역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네 곳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미술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 1) 도내 예술영재교육원 기관의 실태

제주도내 예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원은 2012년 3월에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 9일 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을 설치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운영분야는 음악과 미술이며 출범 첫해인 2012학년도에는 제주학생문화원이 음악,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미술 분야 영재교육을 각각 맡았다. 신입생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 분야별로 20명씩 선발하였고 관찰추천제에 따라 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추천위원회의 심의, 예술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영재성 검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에 이어 2013학년도에는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에서의 미술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연간 120시간 이상 기초교육과 실기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양 학생문화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함께 가르치고, 문예(창작) 등 운영분야를 차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 2) 예술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현황과 비율

<표3> 제주도 예술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현황과 비율

영재교육원		예술영재 교육대상자 수		비율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20	20	0.049%
	미술	0	20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0	20	
	미술	20	20	

제주도에서의 본격적인 미술영재교육은 2012학년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3학년도에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도 같은 형태의 미술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 학급 당 학생 수는 제주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의 0.049%에 지나지 않아 미술에 잠재력을 가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미술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3) 예술영재교육원 담당 교사 현황

<표4> 제주도 예술영재교육원 담당 교사 현황

영재교육원		예술영재 교사 수(명)				비고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전담강사	비전담강사	전담강사	비전담강사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4	5~10명	4	5~10명	
	미술	0	0	4	”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0	0	4	”	
	미술	4	4	4	4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담당 교사 현황을 보면 제주대학교 미술 강사 2명, 화가 2명, 초등학교 교사 4명이다. 제주학생문화원의 담당 교사 현황도 비슷하며 이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미술영재아를 가르쳤던 경력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클락과 짐머먼은 미술 영재의 재능이 타고난 능력이나 단순한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들은 재능이 계획적인 학습과 지도하에 양성될 수 있으며, 미술 영재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sup>42)</sup> 미술 영재 교육 연구자들은 예리한 문제의식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미술영재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 및 교육 행정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 4) 예술영재학급 학생 선발 과정

<표5> 제주도 예술영재학급 학생 선발 과정

단계	구분	비고
1단계 (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신청	· GED에 학생용 검사 및 자기보고서 작성 · GED에 학부모용 지원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교사관찰추천 그룹 편성
	교사관찰추천	· 교사관찰추천
2단계 (학교)	학교추천위원회 개최	· 영재교육기관별 추천 · 영역별 학년 재적인원의 10% 이내
3단계 (예술영재 교육원)	원서 접수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제주학생문화원)	· 해당 영재교육기관 · GED에서 제출, 유선으로 확인
	1차 합격자 발표	·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제주학생문화원 홈페이지에 발표 · 2단계 선발고사 안내
	영재성 검사	· 1차 합격자 ·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

42) 길버트 클락, 에니드 짐머먼(2008), 전계서, PP.126-139.



3단계 (예술영재 교육원)	2차 합격자 발표	·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제주학생문화원 홈페이지에 발표 · 3단계 선발고사 안내
	면접고사	· 2차 합격자에 한함 ·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제주학생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

제주도 예술영재학급 학생 선발 과정은 1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신청과 교사관찰 추천을 거쳐 2단계인 영역별 학년 재적인원의 10% 이내에서의 학교 추천이 필요하다. 학교 추천 서류를 통해 1차 합격자를 선별한 후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영재성 검사를 받아 2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 고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고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 1단계인 교사관찰 추천이 가장 중요하지만 객관적 점수 산출 기준이 모호하므로 미술영재아 판별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 5)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표6> 2012학년도 제주도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날짜	주 제	주요 내용 및 활동	준비물	비고
3/24	입학식	○입학식 및 활동 안내	필기구, 포트폴리오파일철, 작품 노트, 캔버스, 아크릴물감, 외장 핸디코트	
3/31	미술사	○미술사의 이해 - 포트폴리오 제작	필기구, 포트폴리오파일철, 작품 노트, 색연필, 사인펜	
4/7	드로잉 1	○소묘	포트폴리오북, 미술연필, 지우개	
4/14	드로잉 2	○인물 드로잉	크로키 스케치북, 미술연필, 지우개, 색연필, 마카펜	
4/21	수채화 1	○수채화 - 수채화 기법 이해	드로잉북, 미술연필, 지우개, 도화지, 이젤, 수채화물감, 수채화 붓, 팔레트, 물통	
4/28	수채화 2	○수채화 - 창의적 수채화 표현	포트폴리오북, 미술연필, 지우개, 도화지, 이젤, 수채화물감, 수채화 붓, 팔레트, 물통	
5/12	아크릴화 1	○창의적 아크릴화 표현 - 특강: 재료의 특성 알기 - 아크릴화 맛보기	포트폴리오북, 아크릴물감, 캔버스, 이젤, 아크릴붓, 1회용 플라스틱 접시, 물통	

5/19	아크릴화 2	○ 창의적 아크릴화 표현 - 창의적 아크릴화 표현	포트폴리오북, 아크릴물감, 캔버스, 이젤, 아크릴붓, 1회용 플라스틱 접시, 물통
6/2	판화 1	○ 목판화 제작1 - 특강: 목판화 이해 - 재료의 특성 알기 및 주제 선정 - 목판화 제작	포트폴리오북, 미술연필, 지우개, 조각칼, 장갑
6/9	판화 2	○ 목판화 만들기2 - 목판화 심화 이론 - 목판화 디자인 - 목판화 제작	포트폴리오북, 미술연필, 지우개, 조각칼, 장갑
6/16	디자인	○ 장서표 만들기 - 장서표 디자인하기 - 장서표 제작	포트폴리오북, 미술연필, 지우개, 조각칼, 장갑
6/23	한국화 1	○ 전통회화 표현방법 탐색 - 특강: 한국화 재료 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삼원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 만들어 보기 - 만든 색을 이용해서 간단한 작품 만들기 - 감상	포트폴리오북, 미술연필, 지우개, 먹물, 화선지, 물통, 흰플라스틱 접시 2개, 한국화 붓, 문진, 한국화물감(또는 수채물감), 서예용 갈래
6/30	한국화 2	○ 민화 표현하기 - 민화의 특징 알기 - 참고 작품 감상 - 민화 표현 익히기	포트폴리오북, 미술연필, 지우개, 먹물, 화선지, 접이식 부채, 물통, 흰플라스틱접시 2개, 한국화 붓, 한국화물감(또는 수채물감), 서예용 갈래
7/7	벽화	○ 벽화 제작 타일 만들기 - 개인별 타일 디자인하기 - 타일 그리기	- 학생준비물: 포트폴리오북, 약간의 간식 - 교사: 타일(초벌 도판 타일), 안료(타일벽화용물감), 붓, 유약 등
7/21 ~ 7/22	예술영재 여름캠프 (예술의 세계로 풍년)	○ 커리어 코칭 - 미술 관련 커리어 탐색 - 나의 적성과 능력 알기 ○ 저지예술인 마을 탐방 ○ 제주현대미술관 탐방 ○ 노리갤러리 탐방 ○ 작가와의 만남(이명복 화가) ○ 벽화 작품 활동(재능 기부활동) ○ 가마솥 체험 ○ 캠프파이어 ○ 도미노 협동활동 ○ 랩핑디자인 - 랩핑디자인 그룹별 구상 - 랩핑디자인 스케치하기 ○ 랩핑디자인 - 랩핑디자인 표현활동 - 평가 및 감상	- 일반 준비물: 세면도구, 여벌 옷, 우산(우천시 대비), 포트폴리오 북, 필기도구(색연필, 싸인펜 등 포트폴리오 북 작성 시 필요한 도구 포함), 개인상비약 등 필요용품  - 랩핑디자인 활동 시 준비물: 수채화붓,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가위, 커터칼, 파레트  - 캠프 활동 시 준비물: 쌀(1컵),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등 장작불 속에 넣어 구워먹을 수 있는 것을 호일에 잘 싸서 준비

9/8	캘리그래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그래피의 세계 이해하기</li> <li>- 특강: 캘리그래피 이해</li> <li>- 세계 여러나라의 문자 비교</li> <li>- 다양한 선긋기하기 (선의 형태, 질감)</li> <li>- 나만의 손글씨 만들기</li> </ul>	서예붓(중간호수)1개, 수채물감, 수채화 붓, 포트폴리오북	
9/15	캘리그래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그래피 작품 제작</li> <li>- 주제별 캘리그래피 디자인하기</li> <li>- 글씨 형상과 어울리는 이미지 그리기</li> </ul>	서예붓(중간호수)1개, 수채물감, 수채화 붓, 포트폴리오북	
9/22	일루전그라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루전그라피 표현</li> <li>- 트릭아트뮤지엄 관람</li> <li>- 일루전그라피 표현의 세계 알기</li> </ul>	필기도구, 사진기	
10/6	일루전그라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루전그라피 표현</li> <li>- 주제선정 및 재료선정</li> <li>- 작품활동 하기</li> <li>- 작품감상 활동</li> </ul>	포트폴리오북, 채색도구	
10/13	영역별 심화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따른 영역별 심화선택활동</li> <li>- 수채화 주제선택활동</li> <li>- 아크릴화 주제선택활동</li> <li>- 한국화 주제선택활동</li> <li>- 판화 주제선택활동</li> </ul>	포트폴리오북, 작품계획서	
10/20	영역별 심화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따른 영역별 심화선택활동</li> <li>- 수채화 주제선택활동</li> <li>- 아크릴화 주제선택활동</li> <li>- 한국화 주제선택활동</li> <li>- 판화 주제선택활동</li> </ul>	포트폴리오북, 작품계획서, 개별준비물 및 미술도구	
10/27	영역별 심화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따른 영역별 심화선택활동</li> <li>- 수채화 주제선택활동</li> <li>- 아크릴화 주제선택활동</li> <li>- 한국화 주제선택활동</li> <li>- 판화 주제선택활동</li> </ul>	포트폴리오북, 작품계획서, 개별준비물 및 미술도구	
11/3	영역별 심화활동 4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따른 영역별 심화선택활동</li> <li>- 수채화 주제선택활동</li> <li>- 아크릴화 주제선택활동</li> <li>- 한국화 주제선택활동</li> <li>- 판화 주제선택활동</li> <li>○ 창의적 산출물발표대회</li> <li>- 창의적 산출물발표 및 토의</li> </ul>	포트폴리오북, 채색도구 발표 보고서	

11/10	영재 페스티벌	영재 페스티벌 참가	포트폴리오북	
11/17	팝아트 1	○팝아트 체험하기 - 특강:팝아트 이해 - 팝아트 디자인하기 - 팝아트 작품 제작	포트폴리오북, 작품계획서, 개별 준비물 및 미술도구	
11/24	팝아트 2	○팝아트 프로젝트 - 주제 선정 - 구상 및 제작 - 작품 발표	포트폴리오북, 작품계획서, 개별 준비물 및 미술도구	
12/1	디자인 1	○디자인 이해 및 영역 선택 활동 - 특강: 디자인 영역에 따른 특강 - 현대 디자인 흐름 엿보기 - 디자인 영역별 선택 활동 - 디자인 영역별 표현 활동	헌 잡지책(어린이용) ,포트폴리오북, 20cm 이상 자	
12/15	디자인 2	○디자인 이해 및 영역 선택 활동 - 특강: 디자인 영역에 따른 특강 - 디자인 영역별 선택 활동 - 디자인 영역별 표현 활동 - 작품 마무리 및 수정활동 - 작품 감상	헌 잡지책(어린이용) ,포트폴리오북, 20cm 이상 자	
12/22	작품 전시회	○작품 전시회 - 학부모님께 작품 설명하기 - 작품 감상활동 ○특강 - 천재 미술 화가들의 생각과 발상(피카소, 앤디워홀)	포트폴리오북, 활동지	
2/16	수료식	○수료식 - 활동마무리 영상 상영 및 소감 - 작품 철거		

2012학년도의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미술사, 드로잉, 수채화, 아크릴화, 판화, 디자인, 한국화, 벽화, 캘리그래피, 일러스트그래피, 팝아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역별 심화활동 및 예술영재 여름캠프,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영재 페스티벌,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재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고 있었다.

<표7> 2013학년도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날짜	주요 활동		준비물	비고
3/16	○ 입학식 및 활동 안내 - 활동 안내 및 규칙 약속, 아트북 활용 방법 안내 특강 - '21세기 창의 인재, 예술이 간다!'		- 개인: 필기구, 개인 기본 준비물 - 교육원: 강의 자료	
3/23	○ 특강 - 자신과 친구의 강점 찾기 ○ 인성·리더십 교육 - 미래 예술가의 손 짚기 및 친교 활동		- 개인: 필기구, 개인 기본 준비물 - 교육원: 캔버스, 물감, 붓, 핸드코트	
3/30	○ 미술 표현 기초 이론		- 개인: 필기구, 개인 기본 준비물 - 교육원: 아트북, 캔버스, 물감, 붓, 핸드코트	
4/6	1년차 교육생	2년차 교육생	- 개인: 필기구, 아트북,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 교육원: 콩테, 목탄, 캔트지	
	드로잉 1	드로잉 심화		
4/13	드로잉 2	"	- 개인: 필기구, 아트북,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 교육원: 콩테, 목탄, 캔트지, 색연필, 커피, 접시, 붓	
4/20	드로잉 3	"	- 개인: 필기구, 아트북,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 교육원: 콩테, 목탄, 캔트지, 색연필, 커피, 접시, 붓	
4/27	수채화 1	"	- 개인(1년차): 필기구, 아트북,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수채물감, 붓, 파레트, 물통, 앞치마, 두루마리 화장지, 걸레 - 개인(2년차): 필기구, 아트북,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 교육원: 콩테, 목탄, 캔트지, 색연필, 커피, 접시, 붓	
5/11	구도 및 원근법 이해	포토카피를 이용한 소묘, 점묘법에 의한 드로잉	- 개인: 필기구, 아트북,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수채물감, 붓, 파레트, 물통 - 교육원: 정물, 캔트지, 접시, 붓 등	
	정물수채화 점묘 표현			
5/25	풍경수채화 기법 이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드로잉	- 개인: 필기구, 아트북, 미술용 연필, 미술용 지우개, 수채물감, 붓, 파레트, 물통 - 교육원: 정물, 캔트지, 접시, 붓, 다양한 미술 재료	
	풍경수채화 번짐 효과 표현			

2013학년도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3월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인성리더십 교육과 미술 표현 기초 이론을 학습한 후 신입생에게는 작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년차의 재학생들에게는 심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들을 위한 차별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IV. 연구 방법 및 결과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직접 찾아가거나 집으로 배부하였다. 제주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는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배부된 설문에 응한 교사 319(남 63명, 여 256명)명과 학부모 445명(남 184명, 여 2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8> 교사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3	19.75
	여	256	80.25
	계	319	100
담당 학년	1학년	37	11.60
	2 "	38	11.91
	3 "	46	14.42
	4 "	44	13.79
	5 "	69	21.63
	6 "	58	18.18
	교과 전담	27	8.46
교직 경력	초임~5년 미만	73	22.88
	5년 이상~10년 미만	94	29.47
	10년 이상~15년 미만	63	19.75
	15년 이상~20년 미만	25	7.84
	20년 이상	64	20.06
미술영재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없다	315	99.06
	있다	3	0.94
미술영재 담당 및 지도 경험	없다	316	99.37
	있다	2	0.63

설문에 응한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교사의 비율이 80.25%이고, 5학년을 맡은 교사가 21.63%로 가장 많았다. 교직 경력은 5년~10년 사이의 비율이 29.47%, 초임~5년 미만이 22.88%, 20년 이상의 교사도 20.06%가 참여하였다. 미술영재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0.94%, 미술영재 담당 및 지도 경험 교사가 0.63%에 지나지 않아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의 설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표 9> 학부모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84	41.35
	여	261	58.65
	계	445	100
자녀 학년	1학년	103	23.15
	2 "	74	16.63
	3 "	72	16.18
	4 "	103	23.15
	5 "	53	11.91
	6 "	40	8.9
미술영재교육 관련 경험	없다	415	93.26
	있다	30	6.74

설문에 응한 학부모의 특성은 교사와 달리 여자의 비율이 58.65%로 지나치게 편중되지는 않았다. 자녀의 학년은 1학년과 4학년 학부모의 비율이 23.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학년 학부모였다. 이는 1학년은 신입생이므로 교육에 열의가 있고, 4학년은 영재아 선발 대상이 5학년부터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미술영재교육 관련 경험이 6.74%로 교사보다 학부모가 높아,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조사 도구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영재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여러 논문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영재교육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료교사와 일부 학부모의 사전 설문조사 및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문항수와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미술영재에 대한 인식’,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요구’의 3개 영역으로 문항을 구분하였고, 교사용과 학부모용 모두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중 일부를 5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여 계량화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문항 분포도는 <표 10>와 같다.

<표 10> 영역별 문항 분포도

영역	교사		학부모	
	문항번호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수
미술영재에 대한 인식	1~5	5	1~5	5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6~16	11	6~16	11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요구	17~20	4	17~20	4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간의 유의미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미술영재에 대한 인식과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319명, 학부모 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자료를 수집하고,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상관관계의 정도가 강한지 약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두 집단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3. 미술 영재에 대한 인식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하여 미술영재교육 전반에 걸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각 항목의 가설은 ‘교사와 학부모 간에 응답 내용이 차이가 없다’로 설정하고  $p < 0.001$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에게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비롯한 미술영재의 정의, 특성, 미술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 방법 등을 6개의 문항으로 그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빈도와 백분율로 정리하였다.

<표 11> 미술영재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소

미술영재 요소	교사	학부모	전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46(7.26)	146(16.44%)	192(12.61%)
표현의 유창성 및 정교성	136(21.45)	228(25.68%)	364(23.92%)
남과 다른 독창성과 창의성	253(39.91)	388(43.69%)	641(42.12%)
작품 완성에 대한 과제집착력	92(14.51)	36(4.05%)	128(8.41%)
예술적 환경 요소에 대한 민감성	107(16.88)	90(10.14%)	197(12.94%)
전체	634(100)	888(100%)	1522(100%)

미술영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고르는 문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의 경우 남과 다른 독창성과 창의성이라는 응답이 39.9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표현의 유창성 및 정교성(21.45%), 예술적 환경 요소에 대한 민감성(16.88%), 작품 완성에 대한 과제집착력(14.51%),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7.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남과 다른 독창성과 창의성이라는 응답이 43.6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표현의 유창성 및 정교성(25.68%),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16.44%), 예술적 환경 요소에 대한 민감성(10.14%), 작품 완성에 대한 과제집착력(4.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교사와 학부모의 미술 영재교육에의 관심 정도

교사	학부모	전체	DF	t	p
2.56(0.91)	2.51(0.96)	2.53(0.94)	760	0.69	0.4888

교사와 학부모의 미술 영재교육의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미술 영재교육의 관심 정도는 5점 만점 중 2.5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미술영재에 대한 정의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미술의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 (%)	34 (10.66)	111 (25.06)	145	41.2879	<.0001
또래에 비해 그림을 특히 잘 그리는 사람 (%)	11 (3.45)	42 (9.48)	53		
미술 영역 중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 (%)	217 (68.03)	220 (49.66)	437		
미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수한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 (%)	57 (17.87)	70 (15.80)	127		

미술영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41.2879$ ,  $p<.0001$ ).

교사의 경우 미술 영역 중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68.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미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수한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17.87%), 미술의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10.66%), 또래에 비해 그림을 특히 잘 그리는 사람 (3.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미술 영역 중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49.6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술의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25.06%),

미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수한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15.80%), 또래에 비해 그림을 특히 잘 그리는 사람(9.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미술영재성 여부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없다 (%)	149 46.86	221 49.66	370	23.8981	<.0001
모르겠다 (%)	101 31.76	183 41.12	284		
있다 (%)	68 21.38	41 9.21	109		

지도 학생 또는 자녀 중 미술영재로 여겨지는 학생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3.8981$ ,  $p<.0001$ ).

교사의 경우 없다(46.8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모르겠다(31.76%), 있다(2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없다(49.6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모르겠다(41.12%), 있다(9.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예술영재교육원에서의 미술영재교육 실시 인지 여부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모른다 (%)	244 (76.73)	416 (93.48)	660	44.5806	<.0001
안다 (%)	74 (23.27)	29 (6.52)	103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미술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4.5806$ ,  $p<.0001$ ).

교사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76.73%로 안다는 응답 23.2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93.48%로 안다는 응답 6.5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부모보다 미술영재아를 직접 가르치거나 업무상 학생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다.

<표 16> 미술영재교육 실시 인지 경로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홍보를 통해서 (%)	23 (28.75)	10 (31.25)	33	16.3758	0.0058
업무를 맡아서 (%)	12 (15.00)	0 (0.00)	12		
소문에 의해서 (%)	20 (25.00)	10 (31.25)	30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	4 (5.00)	7 (21.88)	11		
영재 선발과정에 참여해서 (%)	11 (13.75)	0 (0.00)	11		
기타 (%)	10 (12.50)	5 (15.63)	15		

서귀포 학생 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서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3758$ ,  $p=0.0058$ ). 그러나 항목의 33%가 기대빈도 5 이하로 나타나서 카이검증의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홍보를 통해서(28.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소문에 의해서(25.00%), 업무를 맡아서(15.00%), 영재 선발과정에 참여해서(13.75%),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5.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라는 응답은 12.50%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홍보를 통해서(31.25%), 소문에 의해서(31.2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21.88%)로 나타났다. 기타라는 응답은 15.63%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 모두 영재교육 실시 인지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표 17> 미술영재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유치원 이전 (%)	53 16.99	108 25.35	161	32.2252	<.0001
유치원 (%)	89 28.53	144 33.80	233		
1학년 (%)	32 10.26	62 14.55	94		
2학년 (%)	7 2.24	11 2.58	18		
3학년 (%)	51 16.35	38 8.92	89		
4학년 (%)	36 11.54	31 7.28	67		
5학년 (%)	12 3.85	9 2.11	21		
6학년 (%)	3 0.96	6 1.41	9		
중학교 이상 (%)	29 9.29	17 3.99	46		

미술영재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2.2252$ ,  $p<.0001$ ).

교사의 경우 유치원(28.53%)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유치원 이전(16.99%), 3학년(16.35%), 4학년(11.54%), 1학년(10.26%), 중학교 이상(9.29%), 5학년(3.85%), 2학년(2.24%), 6학년(0.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유치원(33.80%)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유치원 이전(25.35%), 1학년(14.55%), 3학년(8.92%), 4학년(7.28%), 중학교 이상 (3.99%), 2학년(2.58%), 5학년(2.11%), 6학년(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유치원부터 또는 유치원 이전부터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로 보여진다.

<표 18> 초등학교 시기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아니다 (%)	64 20.19	111 26.06	175	3.4747	0.0623
그렇다 (%)	253 79.81	315 73.94	568		

초등학교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0.19%보다 많았다. 학부모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3.9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6.06%보다 많았다.

<표 19> 초등학교 시기 미술영재교육 불필요 이유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초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	44 64.71	68 62.96	112	3.3353	0.1887
미술 분야에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	17 25.00	19 17.59	36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적 분위기 조성 때문에 (%)	7 10.29	21 19.44	28		

초등학교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불필요 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64.71%로 가장 많았고, 미술 분야에 지출되는 사교육비 증가(25%),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

쟁적 분위기 조성(10.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도 초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62.96%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적 분위기 조성(19.44%), 미술 분야에 지출되는 사교육비 증가(1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 더 중요하므로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20> 초등학교 시기 미술영재교육 필요 이유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	33 12.89	56 17.78	89	3.5909	0.1661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기 위해 (%)	210 82.03	249 79.05	459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	13 5.08	10 3.17	23		

초등학교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82.0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12.89%),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5.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79.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는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17.78%),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영재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21> 미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시 잠재성 평가의 적합한 방법

항목	교사		학부모	
	평균(표준편차)	순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창의성 검사	6.65(1.66)	1	6.60(1.93)	1
미술실기 평가	5.84(1.81)	2	5.38(1.97)	3
담임교사 추천서	3.66(1.97)	6	3.56(2.21)	6
포트폴리오 평가	5.40(1.90)	3	3.94(1.61)	5
리더십특성 검사	2.68(1.52)	7	3.02(1.46)	8
지적능력검사(IQ 검사 등)	2.60(1.70)	8	3.51(1.92)	7
실제 수업을 통한 관찰, 추천	4.91(2.04)	4	5.44(2.28)	2
공간지각능력 검사(시지각 검사 등)	4.22(1.99)	5	4.54(2.32)	4

미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 잠재성 평가에 적합한 방법에 대한 문항은 응답의 값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구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는 창의성 검사, 미술실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실제 수업을 통한 관찰, 추천 순으로, 학부모는 창의성 검사, 실제 수업을 통한 관찰, 추천, 미술실기 평가, 공간지각능력 검사(시지각 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창의성 검사를 1순위로 응답하였고 교사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학부모는 실제 수업을 통한 관찰·추천을 2순위로 응답했다. 교사는 보다 객관적으로 학생의 누적된 작품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부모는 교사의 실제 수업에 의한 관찰과 추천을 신뢰하고 있다.

<표 22> 미술영재교육 운영학급의 적당한 구성 인원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5명 이하 (%)	123 38.68	212 50.36	335	11.9114	0.0180
6 ~ 10명 (%)	154 48.43	158 37.53	312		
10 ~ 15명 (%)	28 8.81	40 9.50	68		
16 ~ 20명 (%)	10 3.14	8 1.90	18		
21 ~ 30명 (%)	3 0.94	3 0.71	6		



미술영재교육 운영학급의 적당한 구성 인원 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9114$ ,  $p=0.0180$ ).

교사의 경우 6~10명(48.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명 이하(38.68%), 10~15명(8.81%), 16~20명(3.14%), 21~30명(0.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5명 이하(50.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6~10명(37.53%), 10~15명(9.50%), 16~20명(1.90%), 21~30명(0.7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 학급당 20명의 정원은 너무 많으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급당 인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표 23> 적당한 미술영재 교육 기간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1년 (%)	25 7.86	27 6.35	52	16.3198	0.0026
2년 (%)	94 29.56	85 20.00	179		
3년 (%)	89 27.99	172 40.47	261		
4년 (%)	10 3.14	9 2.12	19		
5년 이상 (%)	100 31.45	132 31.06	232		

적당한 미술영재 교육 기간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3198$ ,  $p=0.0026$ ).

교사의 경우 5년 이상(31.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2년(29.56%), 3년(27.99%), 1년(7.86%), 4년(3.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3년(40.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5년 이상(31.06%), 2년(20.00%), 1년(6.35%), 4년(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부모보다 더 많은 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1~2년의 교육과정으

로 선발되어 교육받고 있는 미술영재아들에게 교육 기간을 연장해 줘야한다는 요구로 보여진다.

<표 24> 효과적인 미술영재교육 운영 기간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학기 중 (%)	34 10.69	43 10.09	77	0.4777	0.7875
방학 중 (%)	81 25.47	118 27.70	199		
학기 중과 방학 모두 (%)	203 63.84	265 62.21	468		

미술영재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영 기간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학기 중과 방학 모두(63.84%)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방학 중(25.47%), 학기 중(10.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학기 중과 방학 모두(62.21%),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방학 중(27.70%), 학기 중(10.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기 중과 방학 모두에 영재교육이 운영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표 25> 학기 중 미술영재교육 운영의 효과적인 교육활동 주기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주 1회 (%)	127 39.94	83 19.62	210	76.4057	<.0001
주 2회 (%)	114 35.85	190 44.92	304		
주 3회 (%)	42 13.21	135 31.91	177		
월 1회 (%)	7 2.20	8 1.89	15		
월 2회 (%)	28 8.81	7 1.65	35		

학기 중 미술영재교육 운영의 효과적인 교육활동 주기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6.4057$ ,  $p<.0001$ ).

교사의 경우 주 1회(39.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주 2회(35.85%), 주 3회(13.21%), 월 1회(2.20%), 월 2회(8.8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주 2회(44.9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주 3회(31.91%), 주 1회(19.62%), 월 1회(1.89%), 월 2회(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 1회 운영되고 있는 교육 주기에 대하여 교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주 2회를 요구하고 있다.

<표 26>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특성에 대한 인식

항목	교사		학부모	
	평균(표준편차)	순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뛰어난 유머 감각과 창의성	2.13(1.47)	4	2.39(1.52)	2
수업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3.14(1.37)	3	3.25(1.31)	3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성	3.57(1.08)	1	3.72(1.12)	1
주제나 재료, 미적 표현에 대한 깊은 조예	3.45(1.21)	2	2.86(1.17)	4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예술적 상식과 높은 지능	2.68(1.38)	5	2.76(1.51)	5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특성의 중요한 정도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문항을 분석하였다. 응답 값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구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성, 주제나 재료, 미적 표현에 대한 깊은 조예, 수업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성, 뛰어난 유머 감각과 창의성, 수업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성을 가장 우선으로 미술영재아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27>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수업연구 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항목	교사		학부모	
	평균(표준편차)	순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	2.44(1.08)	3	2.37(1.06)	3
연구비 등의 경제적 지원	2.61(0.86)	2	2.78(0.87)	2
미술영재교육 관련 폭넓은 연수 제공	3.26(0.92)	1	3.17(0.92)	1
유공교사 교육감 선택 가산점 평정 인정	1.67(0.98)	4	1.66(1.00)	4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수업연구 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문항을 분석하였다. 응답 값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구하였다.

응답 결과 교사와 학부모는 미술영재교육 관련 폭넓은 연수 제공, 연구비 등의 경제적 지원,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 유공교사 교육감 선택 가산점 평정 인정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미술영재교육 관련 폭넓은 연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표 28> 미술영재 지도교사가 되기 위한 적당한 연수시간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30~60시간 (%)	28 8.83	38 9.11	66	26.6091	<.0001
60~90시간 (%)	65 20.50	58 13.91	123		
90~120시간 (%)	89 28.08	76 18.23	165		
120~150시간 (%)	34 10.73	52 12.47	86		
150~180시간 이상 (%)	15 4.73	50 11.99	65		
180시간 이상 (%)	86 27.13	143 34.29	229		

미술영재 지도교사가 되기 위한 적당한 연수시간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6.6091$ ,  $p<.0001$ ).

교사의 경우 90~120시간(28.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180시간 이상(27.13%), 60~90시간(20.50%), 120~150시간(10.73%), 30~60시간(8.83%), 150~180시간 이상(4.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180시간 이상(34.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90~120시간(18.23%), 60~90시간(13.91%), 120~150시간(12.47%), 150~180시간 이상(11.99%), 30~60시간(9.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갖춰져 있다는 인식과 함께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수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여 120시간 정도의 연수 시간을 가장 많이 원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연수 시간인 18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표 29> 초등학교 미술영재 지도교사 선발 방법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일정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를 통해 선발한다 (%)	80 25.24	60 13.89	140	49.51	<.0001
미술교육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면 자격을 준다 (%)	69 21.77	178 41.20	247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	102 32.18	86 19.91	188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에 관계없이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	40 12.62	73 16.90	113		
일정 연차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격을 준다 (%)	24 7.57	35 8.10	59		

초등학교 미술영재 지도교사 선발 방법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9.51$ ,  $p<.0001$ ).

교사의 경우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32.1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일정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를 통해 선발한다(25.24%), 미술교육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면 자격을 준다(21.77%),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에 관계없이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12.62%), 일정 연차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격을 준다(7.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미술교육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면 자격을 준다(41.2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19.91%),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에 관계없이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16.90%), 일정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를 통해 선발한다(13.89%), 일정 연차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격을 준다(8.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라면 그 안에 미술영재교육 지도 요건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교사가 많은 반면 학부모는 미술교육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자에게 자격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30> 초등학교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 시 해결해야 할 과제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교사 관찰 추천제 강화 (%)	15 4.73	39 9.01	54	60.82	<.0001
미술영재 선발에 대한 홍보 강화 (%)	36 11.36	86 19.86	122		
영재 발굴을 위한 교사의 관심 확대 (%)	30 9.46	88 20.32	118		
영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 확대 (%)	11 3.47	36 8.31	47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평가로의 선발방법 개선 (%)	37 11.67	27 6.24	64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 도구의 개발 (%)	188 59.31	157 36.26	345		

초등학교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0.82$ ,  $p<.0001$ ).

교사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 도구의 개발(59.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평가로의 선발방법 개선(11.67%), 미술영재 선발에 대한 홍보 강화(11.36%), 영재 발굴을 위한 교사의 관

심 확대(9.46%), 교사 관찰 추천제 강화(4.73%), 영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 확대(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 도구의 개발(36.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영재 발굴을 위한 교사의 관심 확대(20.32%), 미술영재 선발에 대한 홍보 강화(19.86%), 교사 관찰 추천제 강화(9.01%),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평가로의 선발방법 개선(6.24%), 영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 확대(8.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 도구의 개발을 들었다.

<표 31> 미술영재교육 담당교사 양성 및 임용 시 해결해야 할 과제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연수기관과 연수기회의 부족 (%)	55 17.46	25 5.90	80	27.1451	<.0001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기준과 절차의 부재 (%)	66 20.95	122 28.77	188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	193 61.27	275 64.86	468		

미술영재교육 담당교사 양성 및 임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27.1451$ ,  $p<.0001$ ).

교사의 경우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61.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기준과 절차의 부재(20.95%), 연수기관과 연수기회의 부족(17.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64.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기준과 절차의 부재(28.77%), 연수기관과 연수기회의 부족(5.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미술영재교육 담당교사 양성 및 임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다.

<표 32> 미술영재교육 운영 시 해결해야 할 과제

항목	교사	학부모	전체	$\chi^2$	p
상급 학교와의 연계성 미흡 (%)	61 19.37	60 14.12	121	4.4441	0.2173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족 (%)	58 18.41	84 19.76	142		
교육지원청별 20명에 한정된 인원 할당제 (%)	13 4.13	25 5.88	38		
다양한 형태(상설, 특별, 방과후 등)의 미술영재교육기회부족 (%)	183 58.10	256 60.24	439		

미술영재교육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에 교사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다양한 형태(상설, 특별, 방과후 등)의 미술영재교육 기회 부족(58.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족(18.41%), 상급 학교와의 연계성 미흡(19.37%), 교육지원청별 20명에 한정된 인원 할당제(4.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다양한 형태의 미술영재교육 기회부족(60.24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족(19.76%), 상급 학교와의 연계성 미흡(14.12%), 교육지원청별 20명에 한정된 인원 할당제(5.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미술영재교육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양한 형태의 미술영재교육 기회부족을 들어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요구된다.

<표 33> 초등학교의 미술영재 교육에 대한 전망

교사	학부모	전체	DF	t	p
3.15(0.80)	3.03(0.72)	3.08(0.76)	736	1.97	0.0496



교사와 학부모의 미술영재 교육에 대한 전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미술영재 교육에 대한 전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7$ ,  $p=0.0496$ ). 미술영재 교육 전망은 교사가 평균 3.15, 학부모가 평균 3.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영재 교육에 대한 전망은 교사가 학부모보다 더 좋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내 미술영재교육 기관은 두 곳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에 1곳에서 20명으로 시작하여 올해에는 2곳에서 40명의 영재아가 미술영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작년에 비해 교육 기회는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라 미술영재 지도강사 선정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주도내의 우수한 미술영재아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의 미술영재교육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미술영재교육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해진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미술영재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설문지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내의 미술영재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미술영재교육 기관은 그리 많지 않으며 지방에는 특히 더 적다. 영재교육 기관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선발 인원도 많지 않아 교육의 기회가 적은 제주도 같은 지방의 영재들은 영재성이 발견되지 못하거나 발견된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미술영재 및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부분 미술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극히 소수의 교사와 학부모만이 2012학년도부터 제주도내에서 미술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실제적인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미술영재교육의 시작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며 미술영재교육은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미술영재교육은 타고난 잠재적 재능 분야를 계발시켜 줌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술영재아 선발 방법으로 창의성 검사를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술영재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미술영재교육 운영 기간의 증가를 요구하였다.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특성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성을 꼽았다. 이는 영재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미술영재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이 창조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미술영재교육 관련 연수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자격 연수 시간을 교사보다 학부모가 더 많이 요구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미술영재를 직접

교육함에 있어 학부모들은 지도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교사들 스스로의 꾸준한 자기연찬과 더불어 교육청 차원에서의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도구의 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미술영재성에 대한 검사 도구의 개발은 미술영재의 다양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술영재 선발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미술영재교육 담당교사 양성 및 임용에서의 문제점으로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을, 미술영재교육 운영에서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미술영재교육 기회 부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미술영재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미술영재아의 조기 발굴을 위하여 영재아의 다면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마련, 선발도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도 미술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미술영재교육 기회 제공 및 계속 교육기회의 부재에 따른 사후 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창의적, 융합적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넷째,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영재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의 투입 및 예술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술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재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및 전문적인 미술영재 지도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술영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단순히 소모하는 인간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영역을 창의적으로 창출해 냄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정신 및 물질문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형태의 미술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미술영재의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돕고 개인의 예술적 성취가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동철(2011), 「미술영재담론」, 양서원
- 김동철(2012), 「미술영재 어떻게 가르칠까」(대구교육대학교학술연구총서4), 양서원
- 김정연(2008), 「긍정의 힘을 키우는 그리기놀이 88」, 해와비
- 김정희(2005), 「미술영재 이야기」, 학지사
- 김정희, 강병직(2011), 「미술영재교육학」, 학지사
- 류재만, 김정희, 전성수, 박지숙, 강병직(2011), 「미술영재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백중열 외 오현숙(2008), 「영재미술과 아동미술치료」, 창지사
- 백중열(2005), 「전뇌계발을 위한 영재미술교육」, 양서원
- 백중열(2010), 「창조적 미술영재」, 예경
- 오치영 외(2006), 「생각을 여는 창의적 영재 미술교육」, 양서원
- 전경원(2000), 「한국의 새 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학문사
- 김지연(2011), “한국의 미술영재교육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원(2007), “한국 미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제희(2003), “미술영재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성자(2005), “초등학교 고학년용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연주(2007), “한국 예술영재교육 현황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지(2010), “초등미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은선(2004), “미술영재교육 현황분석”,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희(2003), “미술영재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7집

- 김정희(2003), “미술영재아의 조기 진단과 그 지도 사례”, 예체능교육연구
- 이용애(2003), “초등학교 아동의 시각예술영재성 판별준거개발”, 초등교육연구  
제16호(2)
- 이용애(2004), “우리나라 예술영재선발의 현황 및 과제”, 한국예술영재학회, 서울
- 전성수(1996), “미술영재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 조석희(1995),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교육연구 제5권
- Catharina F. de Wet/정현철(2008), 「영재교육의 기초」, 한국교총 영재교육원
- Gilbert Clark & Enid Zimmerman(2008), 홍소영 역, 「미술영재교육 이론과 실제」,  
미진사

##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gifted art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parents and teachers  
- Focusing on Jeju Island Elementary School -

Kim Eun Heui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the Arts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ang Hee

Most students are aware of their talents and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the ability to reflect on the role of art in life. Innate artistic talent or art that looks like it has been created by gifted children needs to be identified and nurtured as early as possible by creating a social learning environment. Art education must also be appropriate and differentiated to meet special education by offering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t, and this art talent should be viewed as positive.

In this study, a differentiated gifted art education system is currently incomplete in gifted art education selection process and training programs. There is also a lack of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status of gifted art education by Jeju, parents, and teachers.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are explored in this study as a means to improve gifted art education.

The need for Gifted Art Education is established in this study. Relevant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were investigated,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curr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Gifted Arts Education program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gifted art education and issues of art direction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assessing parents' and teachers' understanding.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to achieve self-realization in the kindergarten art classroom via creativity tests is the most appropriate

selection method. Class size affected the amount of time required by teachers and parents to spend on each student, though they were understanding and able to accommodate a variety of artistic levels, attitudes, and potentials. Training opportunities and greater teacher qualifications related to gifted education in art are required.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of gifted art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must be reliable and valid.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development of gifted and talented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various forms of art cited lack gifted education.

Over the course of the previous study on the status and survey analysis and based on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gifted art education, the improvement are as follows. There must be an objective selection process for determining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selection tools,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 variety of art gifted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However, there was a lack of effort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follow-up needs, commitments to a variety of needs and learning materials, and the systematic study of the needs of gifted art education. Professional teacher and tutor training programs are also required.

In 2010,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primary and secondary art education programs were analyzed. Diversity and creativity are the primary means to fostering the current math gifted center. Oriented sciences in the arts sector were thought to expand. The Gifted Arts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is one of the leading institutions of gifted art education and is thought to be able to play a supportive role. The Gifted Education and Gifted Art Education programs have only been installed under the current school board. Gifted art education has seen a gradual increase in national support, but a systematic direc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future needs of the program.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at early levels and increased teacher and parent awareness is necessary.

## 부 록



<교사용 설문지>

###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에서의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무기명으로 응답하신 의견은 오직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미술영재교육에 관한 선생님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과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2. 9. 2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김은희 올림

❖ 해당되는 번호의 ( )안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 ② 여 ( )

2. 현재 담당 학년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

④ 4학년 ( ) ⑤ 5학년 ( ) ⑥ 6학년 ( )

⑦ 교과전담 ( )

3. 교직 총 경력

① 초임 ~ 5년 미만 ( )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 )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 )

⑤ 20년 이상 ( )

4. 미술영재교육 관련 연수 경험 : ① 없다 ( ) ② 있다 ( )

5. 미술영재 담당 및 지도 경험 : ① 없다 ( ) ② 있다 ( )

❁ 해당되는 번호의 ( )안에 선생님의 의견에 가까운 것 하나만 “√”표를 해 주십시오.

< 미술 영재에 대한 인식 >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영재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      ② 관심이 없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관심이 있다. ( )
- ⑤ 매우 관심이 많다. ( )

2. 미술영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술의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 ( )
- ② 또래에 비해 그림을 특히 잘 그리는 사람 ( )
- ③ 미술 영역 중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 ( )
- ④ 미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수한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 ( )

3. 미술영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 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 )
- ② 표현의 유창성 및 정교성 ( )
- ③ 남과 다른 독창성과 창의성 ( )
- ④ 작품 완성에 대한 과제집착력 ( )
- ⑤ 예술적 환경 요소에 대한 민감성 ( )

4.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학급의 학생 중 미술영재로 여겨지는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                      ② 모르겠다. ( )                      ③ 있다. ( )

<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

5. 선생님께서는 현재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                      ② 그렇다. ( ) (5-1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5-1. 예술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홍보를 통해서 ( )                      ② 업무를 맡아서 ( )  
③ 소문에 의해서 ( )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 )  
⑤ 영재 선발과정에 참여해서 ( )        ⑥ 기타 \_\_\_\_\_

6. 미술영재교육은 어느 시기부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유치원 이전 ( )                      ② 유치원 ( )                      ③ 1학년 ( )  
④ 2학년 ( )                      ⑤ 3학년 ( )                      ⑥ 4학년 ( )  
⑦ 5학년 ( )                      ⑧ 6학년 ( )                      ⑨ 중학교 이상 ( )

7. 초등학교 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니오 ( ) (7-1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② 네 ( ) (7-2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7-1. 초등학교 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 )  
② 미술 분야에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 )  
③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적 분위기 조성 때문에 ( )

7-2. 초등학교 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 )  
②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기 위해 ( )  
③ 국가적 차원의 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 )

8. 미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 잠재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 )안에 1부터 8 중의 한 가지 숫자를 써 주십시오.

- ① 창의성 검사 ( )
- ② 미술실기 평가 ( )
- ③ 담임교사 추천서 ( )
- ④ 포트폴리오 평가 ( )
- ⑤ 리더십특성 검사 ( )
- ⑥ 지적능력검사(IQ 검사 등) ( )
- ⑦ 실제 수업을 통한 관찰 · 추천 ( )
- ⑧ 공간지각능력 검사(시지각 검사 등) ( )

9. 미술영재교육 운영학급 구성 인원은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명 이하                                  ② 6 ~ 10명                                  ③ 10 ~ 15명
- ④ 16 ~ 20명                                  ⑤ 21 ~ 30명

10. 한번 선발된 학생의 미술영재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 )                                  ② 2년 ( )                                  ③ 3년 ( )
- ④ 4년 ( )                                  ⑤ 5년 이상 ( )

11. 미술영재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영 기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기 중 ( )                                  ② 방학 중 ( )
- ③ 학기 중과 방학 모두 ( )

12. 학기 중 미술영재교육 운영의 효과적인 교육활동 주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 1회 ( )                                  ② 주 2회 ( )                                  ③ 주 3회 ( )
- ④ 월 1회 ( )                                  ⑤ 월 2회 ( )

< 미술영재 지도교사에 대한 인식 >

13.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특성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 )안에 1부터 5 중의 한 가지 숫자를 써 주십시오.

- ① 뛰어난 유머 감각과 창의성 ( )
- ② 수업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 )
- ③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성 ( )
- ④ 주제나 재료, 미적 표현에 대한 깊은 조예 ( )
- ⑤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예술적 상식과 높은 지능 ( )

14.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수업연구 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 )안에 1부터 4 중의 한 가지 숫자를 써 주십시오.

- ①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 ( )
- ② 연구비 등의 경제적 지원 ( )
- ③ 미술영재교육 관련 폭넓은 연수 제공 ( )
- ④ 유공교사 교육감 선택 가산점 평정 인정 ( )

15. 미술영재 지도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미술영재교육 관련 연수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60시간 ( )      ② 60~90시간 ( )
- ③ 90~120시간 ( )      ④ 120~150시간 ( )
- ⑤ 150~180시간 이상 ( )      ⑥ 180시간 이상 ( )

16. 초등학교 미술영재 지도교사는 어떻게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정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를 통해 선발한다. ( )
- ② 미술교육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면 자격을 준다. ( )
- ③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 )
- ④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에 관계없이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 )
- ⑤ 일정 연차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격을 준다. ( )

<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요구 >

17. 초등학교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 관찰 추천제 강화 (     )
- ② 미술영재 선발에 대한 홍보 강화 (     )
- ③ 영재 발굴을 위한 교사의 관심 확대 (     )
- ④ 영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 확대 (     )
- ⑤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평가로의 선발방법 개선 (     )
- ⑥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 도구의 개발 (     )

18. 미술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양성 및 임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수기관과 연수기회의 부족 (     )
- ②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기준과 절차의 부재 (     )
- ③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     )

19. 미술영재교육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급 학교와의 연계성 미흡 (     )
- ②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족 (     )
- ③ 교육지원청별 20명에 한정된 인원 할당제 (     )
- ④ 다양한 형태(상설, 특별, 방과 후 등)의 미술영재교육 기회 부족 (     )

20.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초등학교의 미술영재 교육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활성화되기 어렵다. (     )    ② 활성화되기 어렵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활성화된다. (     )    ⑤ 매우 활성화된다. (     )

21. 미술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용 설문지>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에서의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무기명으로 응답하신 의견은 오직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미술영재교육에 관한 학부모님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가정과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2. 9. 2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김은희 올림

해당되는 번호의 ( )안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 ② 여 ( )

2. 초등학교 자녀의 학년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

④ 4학년 ( ) ⑤ 5학년 ( ) ⑥ 6학년 ( )

3. 자녀의 미술영재교육 경험 : ① 없다 ( ) ② 있다 ( )

❖ 해당되는 번호의 ( )안에 선생님의 의견에 가까운 것 하나만 “√”표를 해 주십시오.

< 미술 영재에 대한 인식 >

1. 학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영재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    ② 관심이 없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관심이 있다. ( )        ⑤ 매우 관심이 많다. ( )

2. 미술영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술의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사람 ( )  
② 또래에 비해 그림을 특히 잘 그리는 사람 ( )  
③ 미술 영역 중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 ( )  
④ 미술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수한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 ( )

3. 미술영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고른다면 어느 것입니까?

- 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 )  
② 표현의 유창성 및 정교성 ( )  
③ 남과 다른 독창성과 창의성 ( )  
④ 작품 완성에 대한 과제집착력 ( )  
⑤ 예술적 환경 요소에 대한 민감성 ( )

4. 학부모님의 초등학생 자녀 중 미술영재로 여겨지는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                    ② 모르겠다. ( )                    ③ 있다. ( )



<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

5. 학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                      ② 그렇다. ( ) (5-1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5-1. 예술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홍보를 통해서 ( )                      ② 업무를 맡아서 ( )  
③ 소문에 의해서 ( )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 )  
⑤ 영재 선발과정에 참여해서 ( )                      ⑥ 기타 \_\_\_\_\_

6. 미술영재교육은 어느 시기부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유치원 이전 ( )                      ② 유치원 ( )                      ③ 1학년 ( )  
④ 2학년 ( )                      ⑤ 3학년 ( )                      ⑥ 4학년 ( )  
⑦ 5학년 ( )                      ⑧ 6학년 ( )                      ⑨ 중학교 이상 ( )

7. 초등학교 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니요 ( ) (7-1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② 네 ( ) (7-2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7-1. 초등학교 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 )  
② 미술 분야에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 )  
③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적 분위기 조성 때문에 ( )

7-2. 초등학교 시기에 미술영재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 )  
② 잠재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기 위해 ( )  
③ 국가적 차원의 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 )



< 미술영재 지도교사에 대한 인식 >

13.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특성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 )안에 1  
부터 5 중의 한 가지 숫자를 써 주십시오.

- ① 뛰어난 유머 감각과 창의성 ( )
- ② 수업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 )
- ③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이해성 ( )
- ④ 주제나 재료, 미적 표현에 대한 깊은 조예 ( )
- ⑤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예술적 상식과 높은 지능 ( )

14. 미술영재 지도교사의 수업연구 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 )안에 1부터 4 중의 한 가지 숫자를 써 주십시오.

- ①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 ( )
- ② 연구비 등의 경제적 지원 ( )
- ③ 미술영재교육 관련 폭넓은 연수 제공 ( )
- ④ 유공교사 교육감 선택 가산점 평정 인정 ( )

15. 미술영재 지도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미술영재교육 관련 연수시간은 어  
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60시간 ( )      ② 60~90시간 ( )      ③ 90~120시간 ( )
- ④ 120~150시간 ( )    ⑤ 150~180시간 이상 ( )    ⑥ 180시간 이상 ( )

16. 초등학교 미술영재 지도교사는 어떻게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정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를 통해 선발한다. ( )
- ② 미술교육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면 자격을 준다. ( )
- ③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 )
- ④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에 관계없이 자격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 )
- ⑤ 일정 연차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격을 준다. ( )

<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요구 >

17. 초등학교 미술영재 판별 및 선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 관찰 추천제 강화 (      )
- ② 미술영재 선발에 대한 홍보 강화 (      )
- ③ 영재 발굴을 위한 교사의 관심 확대 (      )
- ④ 영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 확대 (      )
- ⑤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평가로의 선발방법 개선 (      )
- ⑥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미술영재 선발 도구의 개발 (      )

18. 미술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양성 및 임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수기관과 연수기회의 부족 (      )
- ②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기준과 절차의 부재 (      )
- ③ 미술영재 담당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      )

19. 미술영재교육의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급 학교와의 연계성 미흡 (      )
- ②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족 (      )
- ③ 교육지원청별 20명에 한정된 인원 할당제 (      )
- ④ 다양한 형태(상설, 특별, 방과 후 등)의 미술영재교육 기회 부족 (      )

20. 학부모님께서서는 앞으로 초등학교의 미술영재 교육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활성화되기 어렵다. (      )    ② 활성화되기 어렵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활성화된다. (      )    ⑤ 매우 활성화된다. (      )

21. 미술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